

또정리님 주부님께
진정함 사랑함 주부님께

주부: 저번 생일엔 생일음 제공해주셔서
이름: 이 상훈

부부를 열심히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내 조재의 가치를
느끼지 못하게 하니 내 자신이 쓸모없는 사람이 되어가는
것이. 두렵습니다. 이럴때 누가 리카타 쪽은복사
하나 주면이건 작은 희망이 있습니다. 어쨌든 내비처사가
어디선가 나타나 나의 삶이 조재의 가치를 느끼게 해주
기 바랍니다. 여러 방법으로 조재도 듣고, 가정방문을 통해
상황이 필요한 부분에 제공해 주시고, 병원에 있을때는
마음의 안정을 찾거나 하시면서 독서를 권해 주시기도
해주세요. 진심으로 감사합니다. 누구나 다 원전하길지만
꼭히 저에게 애정의 조재를 더 내원어 할
남동생 동생관리사 (전체 물리사)께 감사드립니다.
이런에 비는 처사를 추구하리라 굳게 믿습니다.

이름: 이 상훈